

익산, 글로벌 인재양성 총력

외국어교육센터·어린이영어도서관 구축 운영 눈앞 지구촌여행관, 요리체험실 조성 및 상황·체험 중점

익산지역에 어린이영어도서관과 외국어교육센터 등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인프라가 차례로 구축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학생 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육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익산외국어교육센터가 지난해 11월 기관 승인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 절차에 돌입했다.

옛 이리남중 자리에 개원한 센터는 시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1억원(교육청 76억원)이 투입됐다. 3층 규모 건물에 북카페, 블룩존, 지구촌여행관, 요리체험실 등이 조성됐으며 상황·체험 중심의 언어교육을 통해 외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함양하고 실생활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외부는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과



아외무대를 설치하고 환경 정비를 통해 힐링 공간을 조성했다.

시는 교육지원청과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환경 조성에 관한 꾸준한 협의를 통해 학생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2외국어(중국어)와 영어 과정이 있으며 올해 상·하반기에 각 15주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 대상으로는 초등기초외국어과정, 방과후과정, 방학캠프 프과정과 제2외국어 교육과정 등이 오는 3월부터 진행된다.

모든 교육과정은 원어민 보조교사와

한국인 파견교사 등 교육전문가들이 투입돼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이어 개관 2년째를 맞이한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영어 독서문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자료실과 프로그램 운영실, 키즈룸 등으로 구성됐으며 영어도서 등 4만여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영어원서를 장서로 구축해 어린이나 부모들이 한 곳에서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자료도 레벨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왔다.

다양한 영어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상설 프로그램으로 영어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영어문화학교 등이 진행됐으며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행사 등 시즌별 특별 프로그램도 알차게 진행됐다. 코로나19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콘텐츠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들에게 영어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영어문화학교, 시즌별 특별 체험 프로그램, 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등 참신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소통동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통동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연초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해 이목이 집중된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에 '희망' 불씨

군산 소통동 착한 선결제 캠페인

소통동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통동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연초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캠페인은 선결제자가 관내 소상공인·지역업 업소를 방문해 일정 금액을 카드, 현금, 군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선결제하고, 업소에서 발행한 선결제 확인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상가를 재방문, 코로나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역 주민의 힘으로 지키자는 취지다.

소통동은 착한소비운동 캠페인 확산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주민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동장협의회가 차례로 선결제 릴레이를 시행

했고, 소통동 공공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주민 캠페인 참여 홍보에 나서고 있어 시민 호응이 클 경우 향후 군산시 전역 확산도 기대되고 있다.

소통동 임길훈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지 고민하다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은경 소통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주민들께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향후 착한 소비운동이 우리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시민들의 정성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군산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이며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인 각 읍·면·동·리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063-454-4089)와 건축경관과(건물, 063-454-4085)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원광대 보건행정 학생 연구회 청년 동아리지원 활동 마무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복지·보건학부 보건행정학 전공 소속 학생연구회 '도담'이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익산시 모여라!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난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동아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익산시 모여라!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익산시에 기반을 둔 청년 동아리에 사업비를 지원해 청년의 상호 교류 촉진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행정 학생연구회 도담(회장 유승희 4년)은 익산시민 건강증진 장려 및 건강유지를 위한 '걷기로 찾는 건강'을 주제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익산 시내를 중심으로 5가지 코스를 직접 걸어보면서 건강 활동 척도를 측정하고, '익산시 건강지도-도담과 함께 걸기로 찾는 건강'을 제작해 배포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배달의명수로 주문하고 외식쿠폰 환급 받자

군산사랑상품권 10%할인, 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 차감

군산시는 배달의명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 소비쿠폰 캠페인에 지난 7일부터 사용처로 참여하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외식 할인 지원사업으

로 배달의명수에서 음식주문 2만원 이상 3회결제 후, 4회차에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1만원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행사 기간 중 요일 및 시간제한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뒤 응모한 카드로

주문·결제하면 된다.

배달 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도 외식 할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 또는 현장 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캠페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 모니터링하우스 건립아이디어 공모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연구원(원장 이장호 교수)이 모니터링하우스 건립 아이디어 국제공모를 실시한다.

이 공모는 군산대학교에서 추진 중인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참신성과 편리성을 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것이다. 군산대학교 해상풍력원에서는 2018

년 정부로부터 군산 말도 해상풍력터빈 실증연구 과제를 부여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초에는 지지구조물을 설치하고 터빈을 설치할 예정으로, 풍황 및 발전상황,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공모는 전라북도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고 있고, 국제공모 포스터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모

내용에 대한 영문 번역을 하여 게시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1월 17일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적안을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말도 인근해상에 5.5M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하우스는 주민과의 협업을 고려하고, 작품성과 실용성을 고려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아파트 화재 시 이벽을 파괴하세요"

익산소방서, 경량칸막이 사용 및 안전관리 홍보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파란시 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및 안전관리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mm가량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란설비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이장, 수납장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확인 피크그램 배부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안내문 부착 ▲입주민 대상 설명회를 통해 물건 적치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